

金 지사 “완·전 통합, 전북 백년대계 승부수”

김관영 도지사, 15일 기자회견서
‘전북 100년’ 3대 핵심 전략 제시
완·전 통합 피지컬AI 메가시티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거점화
군산조선소 국가전략기지 재도약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 군민회의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김관영지사
도정 주요현안 기자회견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반도체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으로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확장의 준비된 선택지”라며, “정부의 전국 분산형 반도체 전략

에 발맞춰 전북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확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문제는, “지난 3년 간 405억 원을 투입해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켜 왔다”며, “군산조선소를 국가 조선 산업과 한미 안보 협력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여민유지(與民由之)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길을 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혁신당 “민주당 전략공천 방침 文·李 원칙 부정 밀실 정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서
정청래 전략공천 원칙 비판
“어른조작 판결에도 책임 회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또다시 밀실 공천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는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 내세웠던 정당 혁신의 원칙과 ‘귀책 사유 시 무공천’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도당은 “대법원은 신영대 전 의원 측의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전국 민주주의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며 “이번 사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한 일당 독점이 불러온 필연적 재앙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민의 주권을 유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통

해 공당으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 전략공천 방침은 밀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도민을 향한 선전포고다”며 “어른 조작과 금품 동원으로 공천장을 흥진 캠프의 범죄에 책임지기는커녕, 또다시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행태는 도민의 주권을 기독권의 전유물로 여기는 안하무인 격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조국당은 “민주당의 부패는 구조적이다. 경선 브로커 개입부터 공천현금 의혹까지, 도덕적 파산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전제한 뒤 “경제 없는 권력의 부패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왔고,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남 말하듯 논평할 자격이 없다”고 자성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즉각 ‘무공천’을 선언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과오로 치러지는 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 정치의 수치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 5천만원 부과

납부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8억 2,000만 원, 군산시 8억 원, 정읍시 5억 2,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그 외 시·군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앱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전북 도립·군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 허용 추진”

‘작지만 중요한 공약’ 두 번째 발표
생태훼손 낮은 구간부터 추진
예약제·인원 제한 도입 검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호영 의원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이

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보인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2m 이내),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

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전북도, 여성농업인 경제·건강 지원정책 확대

전북도·농식품부, 15일 원광대서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개최
공동경영주 취업 농업인 자격 유지
특수건강검진 51~80세로 확대

도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폭을 넓히고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익산시장,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등 전국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원광대병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공동경영주가 취업할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돼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겸업 소득과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과 영농·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 사업은 올해 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혔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올해 7,102명을 대상으로 15억 3,000여만 원 규모의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만 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올해 8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51세 미만 여성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검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참석자들도 검진 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생생카드 사업에 4만 4,500명이 혜택을 받고, 농작업 편의장비 2,000대 보급, 출

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0명, 농번기 공동급식 340개 마을 운영, 여성농업인 센터 6개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해 공동경영주, 경영주의 농업인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 기존 팀 단위였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를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시켜 전담 체계를 갖췄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서부권 초미세먼지 직격...주의보 발령

서부권 104 $\mu\text{g}/\text{m}^3$ 기준 초과
대기 정체로 농도 지속 우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mu\text{g}/\text{m}^3$ 을 넘길 때 발령된다.

이날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은 오후 14시 82 $\mu\text{g}/\text{m}^3$, 15시 104 $\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도 오후 15시 89 $\mu\text{g}/\text{m}^3$ 를 기록하였으며 16시에 75 $\mu\text{g}/\text{m}^3$ 이상을 넘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의보는 복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서쪽 해안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 지고 남동진하면서 전 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까지는 전일 유입된 국외 미

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기 중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가습기 살균기를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리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정부계약 선금관리법 발의 “선금 70% 관행 막는다”

부실업체 '선금 받고 불이행' 차단
선금 한도 '50% 이내'로 법제화
이행능력·제재이력 의무 고려 명시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 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 이후 지급한 선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부실 업체에 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금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금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금 지급 한도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국가 및 지자체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호텔·콘도 외국인 합법 채용 지정 ‘인력난 숨통’
E-9 관광숙박업 허용 전국 6번째
도내 77개사 조사·수요 67명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력 필요 인원을 67명으로 파악했다.

응답 업체 53곳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직종별로는 건물청소원 55명,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 각 6명으로 집계됐다.현재 해당 업체들의 건물청소원 부족 인원은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는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영 식당 근무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이직, 임금체불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농진청 “표현체와 AI 결합” 형질조사 시간 ↓

정확도 90% 이상 6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 개발…산업체 이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자 표현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재배지나 실험실에서 작물 크기, 모양, 색, 수량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형질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더 많은 작물과 개체를 반복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3년 동안 개

발한 표현체 기술과 인공지능 학습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340만건 이상을 확보한 후 6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완성했다. 정확도는 90% 이상이다. 이 기술들을 적용하면 일반 카메라(알지비(RGB) 영상)와 특수 카메라(초분광 영상)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크기와 형태, 병 발생 여부, 생육 상태 등을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기술에 대해 관련 특허 4건 출원, 논문 1편 발표, 저작권 1건을 등록했다. 앞으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 역량 강화 기술 전수회를 열고,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디지털육종지원과 권수진 과장은 “표현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육종 기반을 강화하고, 현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주)하림 방문…금융지원 협의

환리스크 헷지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 논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전북 익산 소재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 정호석)을 15일 방문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2026년도 경영 계획과 최근의 대내외 경영 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장 본부장은 지속되는 고환율 기조 속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며, 환리스크 헷지(Hedge) 등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 장 본부장은 하림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견학하며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주)하림은 전북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향토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환율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검역본부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 발표

‘렘피스킨’, ‘블루텃’ 등 국내 유입 미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에서 ‘렘피스킨’, ‘블루텃’,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 국내 유입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모기, 등에모기, 침파리’의 채

집·검사를 통한 병원체 국내 잔존 여부 및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이번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을 진행했다. 예찰사업은 전국 7개 시도 138개 채집지점(거점센터 120개소, 공공포집기 18개소)에서 가축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를 채집한 후 분류하고 질병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채집지점의 경우, 거점센터는 2023년~2024년 렘피스킨 국내 발생지의 지형, 환경 등 매개체 유입 위험도를 고려해 4개 시도(경기, 강원, 충남, 전북)

의 소(牛)농가 각 30개소씩 총 120개소를 지정했으며, 공공포집기는 7개 시도(경기, 강원,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질병 유입 위험지역 18개소를 지정했다. 예찰 결과 총 41,993마리의 매개체가 채집됐으며 렘피스킨, 블루텃,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은 확인되지 않아 국내 유입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 남원시 축산농가에서 채집된 모기(Culex pipiens)에서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일본뇌염바이러스(JEV) 1건이 검출됐다.

검출된 일본뇌염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로, 사람과 동물에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과학적 예찰과 분석을 통해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렘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2026 WM로드쇼’ 성료

자산관리·방카·펀드 등 폭 넓은 정보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15일 전북 관내 영업점 WM(Wealth Manager, 자산관리 전문가)을 대상으로 2026년 ‘WM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WM로드쇼”는 자산관리, 방카, 펀드, 신략, 퇴직연금 등 WM사업을 총망라하는 자산관리 세미나로 시장현황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북 관내 WM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

에 앞장서고 있다. 장길환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 점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일대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26년 사업 운영 방향 논의…노동시장 진입 제공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15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공유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사업 개선 의견 수렴 △2026년도 사업 운영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간

담회는 참여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전주상공회의소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인턴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으



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국내 6개 대학 참가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오늘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 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

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中企, 기후·환경 분야 현장 애로사항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5일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25년 10월에 기후부가 출범함에 따라 금년부터 협의체 이름을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용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영진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전송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19구급대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수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협력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 등 도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전북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협약식 자리에는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방상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신속한 이송 및 적정 병원 선정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센터급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수용 △이송 과정 중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전 이송 통보 체계 유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앞장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18년째 이어와… 전국 4년제 대학중 최저 장학금 지급 전북권 1위

국립군산대학교 2026년도 대학 등록금이 전북권 내 최저 수준으로 동결됐다.

15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위해 202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 대학(학부) 등록금 동결은 지난 2009학년도 동결 이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립군산대 학기 등록금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는 ““국가중심대학으로서 공교육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학부 등록금 동결

이지만 학생 복지 우선 정책과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넉넉지 않은 국립군산대 대학재정을 전달했다.

반면 엄 총장 직무대리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재정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대 학기 등록금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1,659,000원, 예능·공학계열 2,119,000원, 이학·체육계열 1,978,000원이다.

여기에 국립군산대 장학금 지급은 전북권 4년제 대학 중 1위를 기록해 국립군산대만의 자량이기도 하다.

국립군산대 장학금 지급을보면 지난 2024년도 기준 재학생 1인 평균 장학금은 3,900,000원으로 87.2%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로



15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위해 202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산해 보면 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월 3일부터이고, 재학생은 2월 23일부터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원어민화상영어토크클래스’ 평가 ‘우수’

만족도 88.2%·성취도 89.5% 앞가말하기등큰 성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5년 원어민 화상수업 통한 영어 실력 향상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원어민화상영어 토크클래스’ 사업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2025 원어민화상영어토크클래스’ 사업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성취도 조사 결과를 2026.01.15일 발표했다.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사업 만족도는 88.2%로 상위 효과로 나타났으며 성취도에서도 89.5% 높은 성과를 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운영된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사업 참여학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16,10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업 시작 전 진단평가와 수업 종료 후 진행된 읽기·말하기·듣기·쓰기 4개 영역 모두 높은 성과를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수업 과정 모니터링 강화와 강사 전문성 강화 및 수업 제반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국가대표 센터백’ 변준수 영입

19일 김천상무 입대 장기적 시각 전략적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대한민국 수비의 핵심 유망주로 꼽히는 센터백 변준수(24)를 영입하며 수비 라인의 깊이를 더했다.

전북현대대는 15일 광주FC에서 활약하며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센터백 변준수의 영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전북의 수비진 세대교체를 이끌 책임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변준수는 190cm, 86kg의 탄탄한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은 물론, 정확한 패스를 통한 후방 빌드업 능력이 탁월

한 선수다.

지난 두 시즌 동안 광주FC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K리그 통산 71경기 5득점 3도움을 기록, 공수 양면에서 존 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2025시즌에는 리그 33경기에 출전하며 기록 없는 경기력을 선보여 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잠재력은 대표팀에서도 확인됐다.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국제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고, 2025년에는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A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르며 차세대 수비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영입의 특징은 변준수의 군 입

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변준수는 전북현대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마친 뒤, 오는 19일 국군체육부대(김천상무)에 입대한다.

전북현대대는 변준수가 군 복무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기량으로 복귀할 것을 확신하고,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을 결정했다.

이는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전북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변준수는 “K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의 일원이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입대를 앞둔 상황임에도 나를 믿고 선택해 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 생활 동안 전북현대 선수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 전역 후 전주성에서 팬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

활동 공유·활성화 방안 협의

참석자들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아울러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열어가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주도 탐구로 수학 학력신장 이끈다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을 통해 학력 신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수학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수학 문해력 향상과 문제해결력 강화, 단계별 학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수학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수학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문제해결반 운영을 40팀으로 확대한다.

또,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 수학 학력신장 캠프를 운영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특히 학력신장을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수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

르는 과정으로 보고,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과 수학동아리 100개팀, 수학중점학교 67개교 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초등수학학습 지원 시스템과 온라인 수학 학습사이트를 활용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계되는 개별화 학습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학생 학력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수학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수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발명캠프’ 창의력 도전 기회 마련

전북도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로운 발명 캠프가 운영되며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군산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시즌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 기회를 마련하고 자 발명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발명캠프 운영은 2026.01.12~13일 1기 진행에 이어 19~20일 2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군산 관내 초등 3~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전북군산교육지원청은 발명캠프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지원 공문을 보내 캠프운영 학생들을 선정했다.

특히 발명캠프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기기 활용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캠프 주요 프로그램은 스나만의 생활용품 만들기 스나만의 악기 만들기 등이다.

전북군산교육지원청은 캠프 운영을 통해 팀별 활동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만의 아이디어 작품 구현에서 오는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지원청은 발명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필요 핵심 역량 함양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군산교육지원청발명교육센터는 2026학년도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운영 활성화와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겨울철

독감

생활속 예방수칙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실내 습도 40~60%로 유지 하기

손으로 눈, 코 입등 만지는 습관 자제하기

과로는 피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균형잡힌 식사로 면역력 높이기

㈜창진, 군산시 개정면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군산시 개정면(면장 황은호)은 ㈜창진(대표 이창진·이찬미)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CCTV 관로 촬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창진은 2020년도부터 6년째 개정면에 성품 또는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왔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찬미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창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선유도 등 매력적인 겨울 여행 명소 4곳 소개

15일 시는 겨울 군산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낭만적인 항구도시 군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 명소를 소개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선유도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일대에 위치해있다.

특히 신시도와 무녀도, 방축도, 말도와 함께 군도를 이루며 지리적 중심 역할을 맡아 왔으며, 고군산군도 팔경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기가 높다.

겨울철에 방문하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해안 산책로와 데크 도로를 따라 조용히 걷기 좋은 환경이 있어 인기다. 섬과 바다의 대표 명소가 선유도라면 군산의 대표적인 산은 ‘청암산’이다. 청암산은 40여 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8년 일만에 개방된 숨겨진 생태명소로 억새풀길과 왕버드나무 군락지를 따라 걷다 보면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자연의 숨결만이 들린다.

야외보다 따뜻한 실내에서 느긋하게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벨트화 지역이 안성맞춤이다.

1900년대 초 개항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들이기 위해 몰려들며 형성된 근대거리이며 당시 건물을 재창용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어린이영어도서관 방학 맞아 11개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영어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문화학교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어문화학교는 ‘큰 꿈으로 준비하는 미래(Dream Big, Future Ready)’를 주제로 영어 학습 프로그램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참여자들을 희망하는 경우 오늘 오전 10시부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프로그램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7세 대상 강좌 5개, 2차는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6개 강좌가 운영된다.

유아반은 3~5세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토들러(Toddler)반’을 운영한다. 촉감놀이와 영어 동요, 알파벳 놀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부모·자녀 간 유대감 형성을 돕는다.

초등반은 학년과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수업으로 구성됐다. 독후활동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서민 금융불안 덜어드립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 적극 추진

군산시가 새해 서민들의 금융 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의 적극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금융복지센터는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면서 서민의 금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세부 협약사항으로는 △개인회생, 파

산 등 채무조정 대상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협력 △취약계층 대상 법률, 금융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공동상담, 사례공유, 정보교류 등 협업 기반 마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과 사례관리의 시너지 발생으로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연계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지원까지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이래 상당한 운영 성과를 거뒀다.

2025년 9월 25일 개소 이후 연말까지 신규상담 및 상담담 67건을 지원했으며 사례별로는 △파산·회생 10건 △워크아웃 19 건 △새출발 기금 2건 △

채권협상 1건 △기타 4건이다.

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채무 문제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호응을 기반으로 센터는 과중 채무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원스톱 채무 고민 해소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해 상담에서 법률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헌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황토현 축구장’ 조성 본격화

서북권 생활체육 거점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황토현 축구장’ 조성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4억 2500만원(도비 14억 9000만원, 시비 39억 3500만원)을 투입해 덕천면에 국제 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주차장,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체육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왔다. 이어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전체 공사를 발주하며 착공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정책과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올해 공사에 필요한 9억 9000만원을 포함해 총 14억 9000만원의 도비를 적기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구장이 완공되면 서북권 주민과 동

호인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거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연계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는 향후 각종 대회와 교류전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시장은 “황토현 축구장 조성 사업은 서북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소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점검

321개소·미신고 사업장 대가·폐수 등 통합 점검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체계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21개소와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가·폐수·악취·폐기물 등 분야별 점검을 하나로 묶은 합동점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읍시, 올해 첫 핵심 소통회의 열어

이학수 시장 “부서 칸막이 없애고 협업 강화” 지시

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본청의 핵심 전략과 읍면동의 현장 소통 계획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별 목표 및 핵심사업, 읍면동 소통·화합·현장 추진계획 공유를 위한 핵심 소통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각 국별 시청 운영 목표와 주요 사업의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시정을 이끌어갈 주요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과 지



역 활력 제고 등 시청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과제들이 공유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현장 중심 계획도 발표됐다.

각 읍·면·동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 소통 강화 △현장 중심 민원 처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행정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시청’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제는 특정 부서만의 성과가 아닌 시 전체의 성과로 평가받는 시대”라며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점 사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시정 발전 기여 ‘명예 시민’ 8명 선발

명예시민증·기념품 수여

익산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각계 인사를 ‘익산시 명예 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여는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익산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수 전 익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용규 전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김기범 전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지사장 전 익산군산지사장 △안경호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현철 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김건준 전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박

민철 전 1X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장 △김종탁 7공수특전여단장 등 총 8명이 명단에 올랐다.

시는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익산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명예시민에게는 △공공체육 시설 및 관광시설 할인 △시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연하장 발송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기념식 초청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에 기여한 인사를 적극 발굴해 예우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25종으로 대폭 확대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려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상해 진단 위로금’도임으로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 운영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

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보장 내용은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 △팽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손염·한랭질환 진단비 등이 다.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

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콜센터 또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시티투어’ 25일까지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시티투어 프로그램 ‘백제에 반하다, 방학엔 백만여행 이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 탐방과 함께 농촌 체험, 숲 체험 등을 하루 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티투어는 1월 30일과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익산역에서 출발해 △미륵사지·백제제현관 △미륵산골 농촌체험마을(고구

마 함박스테이크) △왕궁포레스트 △이성관교도소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중식과 체험비, 투어비가 모두 포함돼 관광객들의 부담을 낮췄다. 시티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만 5세 이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3대 가족이 함께 참여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마뽕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교육

정읍시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도 법무부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 12월 말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승인받은 농가주와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 노동 교육인 ‘노동랑 농부랑’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시간 준수와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등 인권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 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공유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 농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1인당 GRDP 도내 ‘압도적 1위’

6,395만원…도내 평균 1.92배
전년비 153만원 증가
산단 집적·대기업 입주 효과

완주군이 전북 시군 중 유일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6,0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도내 최고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지난 14일 완주군은 지난해 하반기 도에서 공표한 ‘2022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추계

한 결과 전년 대비 153만 원이 증가해 6,395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인당 GRDP 평균(3,317만 원)의 1.9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북 2위 지역(4,334만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완주군은 340만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KCC 등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와 지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이 1인당 GRDP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로젠, 코웰패션 등 테크노 제2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된다면 향후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태 군수는 “2030년 1인당 GRDP 전국 군 단위 1위 달성이 목표”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집적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 역량을 총집결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도시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27년 국비 확보 나서…신규사업 90건 발굴

시장주재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총사업비 8610억 규모 전략 마련

남원시가 15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 부서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원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2026년도 부처별 주요 업무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8,610억원 규모 신규사업 90건을 발굴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융복합 사업의 추진 전략과 부처별 대응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발굴 사업은 미래신산업, 문화·관광, 정주여건 개선 등 ‘더 큰 남원’을 위한 핵심 과제들로 구성됐다.

대표 발굴사업으로는 △합파우 예술특화지구 조성(500억원), △곤충기반



남원시가 15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주재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지속가능한 헬스케어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100억원), △공공의료 거점 K-UAM 시범사업(90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등이 포함되어 남원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향제 100주년 기념 메모리얼 파크 조성(250억원), △지리산 산악레포츠센터 건립(150억원), △지리산 테리조트 단지조성사업(800억원)을 통해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호남권 야전정비지원센터 건립(151억원), △스마트원에단지 기반조성사업(100억원), △운봉읍 중심

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275억원), △하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54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도 및 중앙부처를 연초부터 조기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희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로 지난해 국회단계 미반영 된 주요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의 맛’ 전주 라한호텔 진출…미식관광 홍보 강화

고추장불고기·순창삼합 등
조식 ‘순창 미시코너’ 한시 운영

순창군이 전주 라한호텔과 손잡고 호텔 내 ‘순창 대표 미식 코너’를 운영하며, 지역 대표음식을 활용한 미식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관광 흐름은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미식 중심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대표 향토음식인 고추장불고기와 순창삼합을 중심으로 한 미식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숙박·관광·외식 인프라가 밀집된 전주 라한호텔과의 협업을 추진해 ‘순창 미시코너’를 마련했다.

‘순창 미시코너’는 오는 25일까지 전주 라한호텔 조식 뷔페 공간에 마련된다. 해당 기간 동안 투숙객들은 조식 메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창 고추장불고기와 순창삼합을 접하며 순창의 맛과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디저트 메뉴로는 순창 담은 초콜릿과 콩이빵 등을 시식할 수 있는 공



순창군이 우석대 RISE 연계를 통해 ‘순창 미시코너’를 오는 25일까지 전주 라한호텔 조식 뷔페 공간에서 진행한다. <사진=순창군>

간도 함께 운영된다. 데스크와 조식 공간 곳곳에는 배너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순창 미식 관광 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이번 사업은 우석대학교 RISE(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됐으며, 조식 메뉴 구성과 현장 홍보는 라한호텔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순창 미시코너’는 라한호

텔의 차별화된 로컬 경험을 제공하는 로컬푸드존 운영 방향과 순창군의 미식관광 활성화와 정책이 결합된 사례로, 순창의 대표 미식을 호텔 이용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민·관·학이 협력해 순창만의 차별화된 미식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용자

보증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접수

완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에 고충을 겪는 무주택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용자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인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가능)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선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50% 이내 지원
착한가격업소·수급자 가점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형 퀵스타트 개편…기업 인력난 개선 ‘정조준’

3억 투입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훈련금 60→140만 인상

남원시가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와 지역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남원에 투자하거나 이전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과 고용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 훈련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1인당 60만 원이던 교육

훈련지원금을 올해는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인력 양성과 신규 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일터혁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에는 근로자 간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식 지원과 함께 노사상생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의 워라벨 실현을 위해 ‘직장인 문화의 날’을 새롭게 도입한다. 남원시는 연 2회 지역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개최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 농촌중심지·경천 생활체육 현안 논의

15일 유희태 군수 연초방문 진행
주민의견·지역 여건 반영 구체화

완주군은 15일 고산면과 경천면을 방문,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경천면 생활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초방문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2026년 균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고산면에서는 북부생활권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행복·활력체육센터를 조성하고 문화·복지·체육·교육 기능을 집약해 주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생활·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공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구성과 함께 주민 이용 편의성

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천면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들은 체력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파크골프장과 같은 저강도 체육시설이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군은 경천면을 포함한 각 읍·면의 여건과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제96~97회 춘향제전위원회 새 출범

도시 전체 무대 체험형 축제 도약

지난 9일 제96회부터 제97회 춘향제를 이끌어갈 춘향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제96회와 제97회 춘향제전위원회는 권덕철 전)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에 출범한 제전위원회는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축제 운영을 목표로, 춘향제의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발전 전략을 체계적

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96회 춘향제는 맛을 주제로 하여 춘향 선발대회, 대동 길놀이, 춘향제향 등 핵심 콘텐츠뿐만 아니라, 공연,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객이 더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과 연출의 완성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춘향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형 축제를 넘어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체험형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교통공원 숲속야영장
도심 속 힐링 명소 자리매김

남원시가 운영하는 ‘교통공원 숲속야영장’이 도심과 인접한 접근성과 숲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1일 개장한 교통공원 숲속야영장은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 약 1만 명을 기록하며 남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교통산 국민관광지 내 28,069㎡ 부지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이곳은, 시내권과 가까우면서도 야영장 인근에 교통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 휴식을 즐기면서 도심 관광을 결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산책과 캠핑을 동시에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다양한 캠핑 수요를 고려해 테크사이트 12면, 파쇄석사이트 14면, 트레일러사이트 3면, 돐하우스 3면으로 조성, 텐트캠핑부터 트레일러 이용, 간편 숙박형 돐하우스까지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향대로 즐기는 맞춤형 캠핑이 가능하다.

시는 공공 야영장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이용 요금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테크와 파쇄석, 트레일러 사이트는 평일·주말 관계없이 3만 원~3만 3천 원 선이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돐하우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주중 5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조정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돈승 “피지컬AI 완주 확정 사업
통합 압박 도구로 삼아선 안 돼”

최근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피지컬AI 실증단지 연계를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피지컬AI는 국가전략사업이지,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 표명이 제기되고 있다.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거쳐 이미 완주 이서면으로 입지가 확정된 국가전략사업”이라며 “통합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엮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완주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완주는 피지컬AI 산업의 최적지이자 필수 거점”이라며 “산업적 현실을 외면한 채 통합 논리를 덧씌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완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지컬AI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완주군민에 대한 협박에 가깝고, 국가 산업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주민의 뜻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김문석(췌)건화 대표이사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15일 췌건화 김문석 대표이사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1990년에 설립된 췌건화는 체계적인 설계 개선에 따른 성과를 인정받아 32회 한국가치경영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문석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해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초산로발전協, 이웃돕기 성금 140만원 기탁

정읍시 샘고을시장 초산로발전협의회(회장 안점용)가 지난 14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4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초산로 일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이 협의회는 평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상인들이 얻은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읍시 지정기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상인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통기타 동호회 '로그인', 장학금 100만원 기탁

익산 지역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통기타 동호회 '로그인'이 새해를 맞아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로그인은 15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재)익산 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호회의 정기 공연, 버스킹 활동을 통해 모은 수익금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했다.

전달된 기탁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음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해 온 동호회의 창립 취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로그인은 지역 축제 참여와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로그인 관계자는 “회원들과 즐겁게 연주하며 모은 정성이 지역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규래씨 가족, 22년째 손자들과 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손자손잡고 시작한 기부, 가족의 연례 나눔으로

22년째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씨와 그의 손자들이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찾았다. 손자들과 손을 잡고 시작한 작은 저금은 어느덧 가족의 연례 나눔으로 자리 잡았다.

임규래씨는 22년 전 손자들과 함께 돼지저금통 기부를 시작한 이후 매년 1년 동안 모은 저금액을 직접 전달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오

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기부하러 가지고 말할 만큼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도 권순범(기전중학교 2학년) 군과 유경곤(하가초등학교 6학년) 군은 지난 1년간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돼지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474,300원으로 전북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규래씨는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정혜민 기자



22년째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씨와 그의 손자들이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찾았다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 전주 어르신들에 모시떡 나눔

어르신들께 감사마음 전하고 이웃 간 온정 나뉘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회장 임종근)가 주최하고 (재)세계여성 평화그룹 전주지부(사무국장 백순선, 이하 IWPG)와 동지재가복지센터(원장 정미영)가 주관·후원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모시떡 나눔 행사'가 15일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통 음식인 모시떡을 매개로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청소년선도회 임종근 대표는 “이번 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완주 구이면 대원사, 떡국 행사수익금 500만원 기탁

완주군 구이면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가 떡국 나눔 행사 수익금 500만 원을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원사가 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새해맞이 떡국 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진스님은 “새해를 맞아 이웃

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정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호순 위원장은 “대원사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구이면 취약계층을 위해 공정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명가의 김민주 사장이 지난 1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등 총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명가, 장학금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나누는 삶 귀감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 '무주명가'의 김민주 사장이 지난 1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등 총 2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민주 사장은 “주민 여러분 덕분에 장사도 어느새 10년 세월을

넘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며 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명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6백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불우 이웃 돕기와 학생 교육에 힘쓰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이인재 부두막 대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15일 안전면에 위치한 음식점인 부두막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두막 이인재 대표는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성원을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지역인재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준성 이사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기부금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 해 주신 장학금은 진안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고 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상관면, 익명 기부자 이웃사랑 실천

완주군 상관면에 익명의 기부자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부금 8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국해숙 상관면장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익명의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상관면은 나눔과 배려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 하세요.



기상예보와 교통정보 확인



차량 수시로 점검
(타이어 상태확인, 안전장치 장착등)



감속운전, 서행 운전
(특히 다리 위, 고가도로, 터널)



차 간 거리 2배 이상 유지
(앞차 타이어 자국따라 운전)

〈一事一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논쟁, 해답은 분산에 있다

김관준
주필

다시 한번 강조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 전략산업을 어디에, 어떤 조건에서 배치해야 지속가능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은 이 논쟁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론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다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초대형 반도체 단지를 집적하는 방식이 전력과 용수, 환경 부담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며, 특히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전력 자급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용수 확보 역시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단기적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지방으로의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SK의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곧, 입지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회복 국면에서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절실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전북과 새만금은 비교우위가 분명하다.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제·행정 지원, 주거와 정주 환경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은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지’가 된다.

이 논의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용인의 문제를 전북이 대신 떠안겠다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는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반사이익이 아니라, 전북이 가진 고유한 경쟁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상징적 과제가 바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를 포함시키는 일이다. 현재 정부 구상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명백한 정책적 공백이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 - 광주 - 부산 - 구미’로 이어지는 4극 체제로 재설계돼야 한다.

전북, 특히 전주는 전력반도체 산업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며, 그 핵심 소재인 탄소(SiC)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 역시 전북에 밀집해 있다.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기능한다면,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는 산업 논리와 공간 전략 모두에서 합리적인 분업 구조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며,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전북과 새만금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분산을 통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 그 비교우위는 이제 분명히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에만 맡기지 않는다. 에너지와 물, 인력, 물류, 안보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입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에 기반한 기존 산업 배치 모델은 이러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반면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대응 역시 용이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

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새만금 이전 논의는 단순히 반도체 한 산업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전력반도체로, 수도권 집중에서 권역별 기능 분담으로,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전환 기반 산업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전북이 제시하는 새만금 모델은 생산기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증·양산이 결합된 완결형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 이전 정책과도 결이 다르다. 전주 여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수도권의 주거 비용과 삶의 질 문제는 이미 기업 경쟁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비용과 쾌적한 환경, 충분한 공간을 바탕으로 계획 단계부터 ‘사람 중심의 산업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인력 확보와 산업 지속성 측면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반도체의 미래를 수도권의 한계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다음 30년을 설계할 것인가.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려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이라는 세 갈래 전략을 통해 전북을 지방수도성장의 선두에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니라, 전북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종합 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선택지다. 김 지사가 강조했듯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의 행정 편의적 접근과는 다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통합은 생존과 도약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잠재력을 전북의 중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은 통합을 둘러싼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한 메시지다.

통합을 통해 피지컬시 메가시티라는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역시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완주군의회와 역사적 판단이며 이는 지역의 이해를 넘어 전북 전체의 미래를 향한 결단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전략 또한 전북의 비교우위를 정확히 짚은 선택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집적부지, 그리고 축적된 연구·인력 인프라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분산형 반도체 전략에 부합한다.

전력과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에서 전북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북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도약 구상도 의미가 크다. 지난 3년간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켜낸 노력 위에서, 군산조선소를 국가 전략 산업과 한미 안보 협력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국가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완전 재가동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김 지사가 강조한 여민유지의 자세처럼, 이러한 구상은 결국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통합은 더 나은 행정과 생활 여건으로, 반도체와 조선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활력으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대전환의 구상이 선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 내부의 충분한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 지방수도성장은 지방에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요구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하고, 반도체와 조선 산업 육성 역시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인재 양성 and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의 도전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의 선택을 미룬다면 더 큰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일관된 추진력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의 의지와 구상이 실현돼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돌아가는 길 / 문 정 희

돌아가는 길
다가서지 마라
눈과 코는 벌써 돌아가고
마지막 흔적만 남은 석불 한 분
지금 막 완성을 꾀하고 있다
부처를 버리고
다시 돌이 되고 있다
어느 인연의시간이 눈과 코를 새긴 후
여기는 천년 인각사 뜨락
부처의 감옥은 깊고 성스러웠다
다시 한 송이 돌로 돌아가는
자연 앞에
시간은 아무데도 없다
부질없이 두 손 모으지 마라
완성이라는 말도
다만 저 멀리 비껴서거라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여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짚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독자광장 |

보이지 않는 전기 위험, 꼭 돌아봐야 할 일들



겨울은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불꽃이나 연기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민감하지만, 실제 화재의 상당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전기 화재’를 경계해야 한다. 작은 불씨가 아니라, 과열·스파크·노후 전선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화재는 예고를 주지 않는다. 냄새나 연기가 감지될 때쯤이면 이미 화재가 꽤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어발식 멀티탭’, ‘피복이 약간 벗겨진 전선’, ‘침대나 소파 아래에 놓인 콘센트’, ‘장시간 켜둔 전열기구’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전기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최근에는, 리튬배터리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하나 보조배터리를 하루 종일 충전기에 꽂아 두거나 침대·이불 위에서 충전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결국 열폭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은 집 안 곳곳에 숨어 있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불은 예고 없이 시작된다. 약간의 열, 한 번의 스파크, 잠깐의 부주의, 이 모든 것이 큰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조심 강조의 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 속 전기위험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로 잡는 일이다.

멀티탭은 문어발식 사용을 멈추고, 열이 나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바로 교체해야 하고, 전열기구 주변은 반드시 불연성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는 침구류 위에서 충전하지 말고, 과충전 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용 중 발열이 심하면 즉시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예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화재 발생 후 1~2분 사이에 연기와 열은 순식간에 번지고 시야가 가려져 대피가 어려워진다. 이 순간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반드시 대피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

대피계획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집 안에서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어디인지, 대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가족 중 누가 먼저 상황을 알릴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다. 특히 “어떤 경로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초기 대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화기 사용법이다. 많은 가정에 소화기가 있지만, 정작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단, 소화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화재 초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미 천장으로 불길이 번졌거나 연기가 방 전체를 채우기 시작한 경우, 그때는 소화기가 아닌

빠른 대피가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대피계획과 소화기 사용법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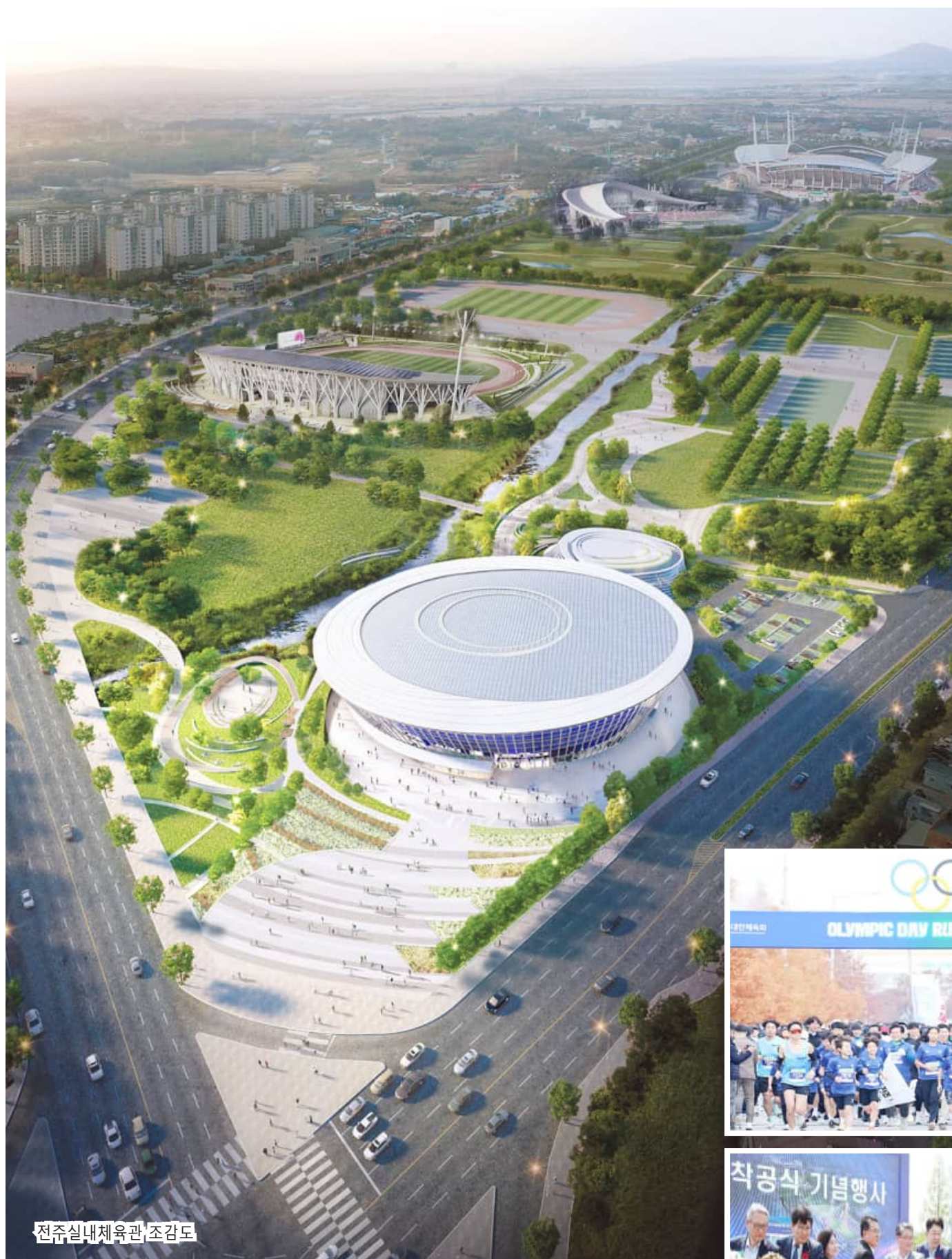
화재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고, 초기대응만 제대로 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실천하느냐, 그냥 넘기느냐’의 차이이다.

전기·배터리 위험을 점검하고, 대피계획을 세우고,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몇 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위험을 다시 보자. 조금의 귀찮음을 참고, 우리 집의 안전을 직접 점검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내가 지키는 안전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더 안전한 겨울이 될 것이다.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소중환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8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매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실내체육관 조감도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조감도

전주시의 올림픽 유치를 향한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후 시민 참여 확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 체육 인프라 구축과 대회 운영 경험 축적이 동시에 진행되며 유치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경기 개최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예술, 관광 자산을 스포츠와 결합하는 '문화올림픽' 구상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도시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전주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스포츠문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문화올림픽’ 내건 전주, 올림픽 유치 준비 본격화

체육 인프라·시민 참여 국제 교류 ‘삼박자’ 준비

▲ 전주올림픽 중심될 복합스포츠타운 구축 본격화
전주시의 전주올림픽을 향한 준비 과정이 구체적인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민 참여와 국제 흐름을 반영한 준비 활동을 병행하면서 외형과 내용이 동시에 정비되는 모습이다.

전주시 올림픽 유치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전주올림픽 유치의 실질적 기반이 될 핵심 체육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심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복합스포츠타운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이 집중된다. 이 중 육상경기장은 총사업비 83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야구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85억 원이 투입돼 함께 조성 중이다. 두 시설 모두 현재 공정을 65%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809억 원이 투입되는 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내경기는 물론, 각종 실내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설계됐다.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2개동이 들어서며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의 핵심 지원시설이 될 '전주 스포츠가치센터'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 체력과 교육, 훈련,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기장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지난해 국비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첫 단계를 마쳤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에 힘을 싣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시는 복합스포츠타운을 스포츠·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복합스포츠타운과 더불어 호남제일문 일대에 스포츠 관광 시설, 문화광장, 야간 경관 콘텐츠 등을 확충해 스포츠 관광과 관광·체험·휴식이 융합된 복합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숙박업, 외식업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과 연계해 관광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올림픽' 비전 내세워 올림픽 도전

전주가 내세우는 올림픽 유치 전략의 핵심은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올림픽'이다.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자산, 관광 요소를 올림픽과 결합해 대회 이후에도 도시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집중 투자와 사후 활용 문제가 지적받던

기존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올림픽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이런 전략은 유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전주에서는 범시민 문화축제와 서명운동, 올림픽 데이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올림픽 유치 논의가 일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도시에선 처음으로 전주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6천여 명이 전주의 거리를 달리며 올림픽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시민 참여와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선진도시를 직접 방문해 대회 운영 방식과 경기장 활용, 사후 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유치 전략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장 조성과 올림픽 준비 과정을 견학했고, 멜버른에선 1956 올림픽의 유산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재생산한 사례를 분석했다. 국제 스포츠기구 및 관련 기관, 교민사회와의 점점 확대 역시 이런 방문 활동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후의 행보는,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일회성 도전이 아닌 중장기 도시 전략의 한 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어지며 올림픽 유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 올림픽 이후까지 내다본 전주의 스포츠 도시 전략

전주시는 다수의 국제·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며 올림픽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대회를 고르게 유치하며, 경기 운영과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한 경험을 단계적으로 넓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주에선 아시아 청소년 넷볼 선수권대회(6월), 전주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8월), 전주 코리아오픈 국제주짓수대회(9월), 전주 월드인라인 마라톤대회(11월) 등 국제대회와 함께 22회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열렸다.

올해도 시는 아이스하키, 배구, 유도 등 총 21개 종목에서 26개의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 체계와 행정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 운영과 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회 운영 경험은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체육 인프라의 활용과도 맞물린다. 실제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설 운영 방식과 동선 관리, 관람 환경 개선 등 인프라와 운영 경험이 동시에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단일 이벤트가 아닌, 대회 이후까지 내다본 장기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경기장과 관련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부터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올림픽 개최 시 주요 경기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대회 이후에는 국제·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생활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 일정이 없는 기간에도 시민 이용과 각종 스포츠 행사가 가능하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 시설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다. 시는 올림픽 개최가 일회성 이벤트로 남지 않고, 체육과 관광, 도시 활동 전반으로 이어질 기반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올림픽이 만든 변화가 도시의 장기적 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정철 기자